
무능 한덕수에게 국가미래 못 맡겨

대선후보라면서 비전제시가 아닌 단일화에만 목매다는 한덕수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단일화 국면에서 한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능과 우유부단 그 자체입니다. 결기도 패기도 없이 그저 단일화 안 되면 사퇴한다, 단일화는 국민의힘에게 맡긴다 외에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위기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혼선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23년 묻지마 살인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자 의무경찰을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실이 부인하면서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해외직구 파동도 있습니다. 24년 KC 안전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현대판 쇄국정책이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자 사흘 만에 철회하며 또 다시 체면을 구겼습니다.

위기만 닥치면 약해지는 지도자가 어떻게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당장 단일화 혼란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자체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능한 관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결기도 과단성도 찾아볼 수 없는 한 후보는,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대통령이라는 대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 박관천